

머리카락 쥐기

머리카락을 좋아해서 항상 내 머리카락을 괴롭히고 또 남의 머리카락을 구경한다. 머리카락을 쥐는 것이다. 여름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싫다. 목이 덥다. 그래도 여전히 좋은 머리카락을 쥐을 기회는 열려 있다. 이를테면, 만화 속.

수검

수검은 김수검이다. 『슬램덩크』 상양고등학교 농구부의 선수 겸 감독 김수검. 나의 내멋대로 분류에 의하면 『슬램덩크』에는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와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가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웅과 정대만이라면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대협과 바로 이 김수검이다.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설명은 잘 못하겠고 그냥 만화를 보다 보니까 대협과 수검이 다른 남자 캐릭터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느꼈다.

상양고 농구부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선수이면서 감독 노릇까지 하게 된 수검은 초반에는 주로 벤치에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뒤에 다크호스처럼 등장해 팀을 견인한다. 스스로를 선발 선수로 기용하지 않는 까닭에 백호로부터 ‘후보 선수’로 불리며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덕분에 나는 수검이 저지를 벗고 진작 예열된 코트로 뛰어드는 순간을 볼 수 있다. 정확히는 틀림없이 얇고 보드라운 수검의 생머리가 화려하게 찢다가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주 가느다랗고 망설임 없는 터치로 그려진 수검의 머리카락은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일 것 같아 보인다. 아마도 수검의 머리카락은 열심히 세 갈래 나누어 총총 땅아 고무줄로 질끈 묶어 주어도 금세 그 땅은 모양이 헐거워지고 마는, 만져 보면 항상 찬 기운을 유지하고 웬만해선 잘 엉키지도 않을, 그런 머리카락일 것이다. 로레알 마지렐 4호와 5호의 사이 정도 빛깔에 스포츠샴푸 냄새가 날 것이고 대강 수건으로 말리고 놔두면 알아서 가르마를 중심으로 흩어지는, 그런 머리카락일 것이 분명하다. 수검을 보고 있으면, 뽀뽀하고 강단지고 금욕적인 여학생회장을 능욕하는 데 몰두하는 야한 만화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혹은 이미 자기 생활이란 게 없을 정도로 뻑뻑한 삶을 사는 장남 캐릭터에게 제멋대로에 바람둥이인 캐릭터를 운명의 상대로 붙여 주는 BL소설 작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평소 수검과 해남대부속고

이정환이 대립하는 것을 상상하길 즐긴다. 둘 다 팀의 주장이지만 성격은 사뭇 다르다. 하나의 포지션으로 설명하기엔 넘치는 능력치를 가진 건 마찬가지로지만 수검이 ‘내가 이거 다 해서 너희 다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 전엔 꼭 이 닦고’로 시작한 일을 가지고 <생활의 달인>에까지 나가게 된 대형 느낌이라면 정환에게선 도장 깨기 대열전에 돌입한 다재다능 도련님의 분위기가 풍기곤 한다. 수검의 머리카락이 단 한 번도 왁스나 젤, 시대를 고려해 포마드나 무스를 허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환의 머리카락은 초반엔 이마로 흐르는 애교머리 몇 가닥을 제외하곤 모두 뒤로 뺏뺏하게 넘긴 모양이었고 후반에도 가운데 가르마를 내어 빗겨져 있었다. 나는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둘 각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물론 『슬램덩크』에는 머리카락에 대해 성토했 만한 다른 인물들이 존재한다. 백호는 빨간 머리 때문에 자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고 중력을 거슬러 솟은 대협은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다. 그러나 나는 수검의 머리카락이 살집 없는 귤바퀴 뒤 피부와 바리칸을 대어 정리했을 목덜미, 저지의 세운 깃 같은 데에 가닿는 것을 상상할 때 가장 잔잔하게 유쾌하다. 포카리스웨트 모델 같은 우리 오빠.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

에스힐드

얼마 전부터 한승원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서 『프린세스』 연재를 재개했다. 구십년대 인기 만화였던 『프린세스』는 가상의 옛 유럽 국가 라미라와 아나토리아, 스페르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3세대의 운명과 사랑을 줄거리로 한다. 삼국의 정경을 그린 장면을 보면 시대를 막론한 건축과 의복 양식이 이렇게저렇게 뒤섞여 등장하는데, 그로 인해 이 가상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읽히는 대신 모든 유행을 초월하는 ‘어떤 옛날 유럽 나라’의 전형으로서 아름답다.

에스힐드는 라미라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인 바르데르의 외동딸이다. 그녀는 총명하고, 나열하자니 끝이 없을 정도로 뭐든 잘 하고, 그러면서도 아니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귀족 영애스러운 거만함과 위압감을 풍기기도 한다. 어여쁜 에스힐드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를 밥 먹듯 듣고 사는 구시대의 희생양 캐릭터로 심지어 집안 때문에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총체적으로 참 안됐다. 그래도 어여쁜 에스힐드. 이 어여쁜 에스힐드의 최고 어여쁜 부분이 바로 금발이다.

유독 길고 풍성한 에스힐드의 머리카락에선 종이-흑백-순정만화에서 금발을 표현하는 특유의 묘사 방식이 돋보인다. 머리카락의 군데군데 얇게 선을 그어서 반질거리는 광택감을 느끼게끔 하는 전통적 수법 말이다. 펜선이 그어진 곳이 반드시 곱슬머리의 오목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데다 윤곽선이 진해서 양감은 약할지 몰라도, 마치 패턴처럼 촘촘히 반복되는 선들로 인해 오묘한 글래머러스함이 있다. 그야말로 탐스러운 머리카락이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캐릭터여서 그런지 에스힐드는 남장을 하고 저잣거리를 자주 시찰한다. 덕분에 그 예쁜 머리카락은 줄곧 두건 안에 감춰져 있다. 두건을 벗고 오 대 오 가르마를 타서 정성스레 빗질을 해 놓으면,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긴 금발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핸드폰의 웹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프린세스』를 본다. 평소에는 걸어 놓던 세로 방향 화면 고정을 해제하고 핸드폰을 가로로 든 채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린다. 원래 종이만화였으니 세로로 보아야 한 페이지가 잘림 없이 화면 안에 들어오겠지만, 한편으론 원래 종이만화였던 것을 좁은 화면에 옮겨 놓으니 식자가 깨알 같아 세로로 보면 눈알이 몹시 아프다. 에스힐드의 머리카락은 가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기다랗다. 그래서 에스힐드의 아름다운 금발이 등장할 때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고롭지만 도저히 그 머리카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기에, 한참 동안 그 머리카락을 감상한다.

에스힐드의 머리색은 감히 현실 금발에 빗대어 상상할 수가 없다. 채색 일러스트에서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었지만 샛노란 빛깔은 결코 아닐 것 같다. 스트로베리 블론드, 에쉬 블론드, 플래티넘 블론드, 코퍼 블론드, 더티 블론드 모두 적절하지 않다. 골든 블론드 정도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막상 구글 이미지검색을 해 보니 골든 블론드로 불리는 머리색들도 내 상상보다는 노랬다. 가장 내 생각과 비슷한 머리색은 흔히 라이트 블론드라고 불리는 금발인데, 수식어의 수비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적절한 명명일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무래도 고운 금색의 비단실을 상상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것 같다. 풍성하게 타래를 지으면 만화 속 묘사와 딱 비슷하게 윤기가 흐를 것이다. 베틀에 날실로 꺾어 놓으면 그 성대함도 얼추 같지 않을까 싶다.

아예 그 머리를 다른 그림 속 금발과 비교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를테면 베네치아 르네상스 회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금발. 베네치아 르네상스 회화에서 가장 특출한 색감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단연 바다의 색깔과 금발 여인의 머리색일 것이다. 굵슬굵슬하고 우아한 빛깔의 금발이 상아색 피부 위로 묵직하게 떨어지는—여기서 묵직하다는 것은 술을 쳐내지 않아 아래가 무거운 머리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코타 클리닉을 막 받고 난 다음처럼 단백질이 딱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바로 그 감촉이, 내가 생각하는 에스힐드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 에스힐드의 머리카락이 만화에 조금 더 자주 나온다면 좋을 텐데.

